

韓醫學 基礎 考論

金 在 德



序 說

筆者가 東洋醫學에 入門한지 3代, 豚兒로서 4代째가 된다, 韓醫學에 心醉한지 40星霜이라고는 하나, 아직도 賤學菲才라 主題에 接近하기엔 두려움이 앞선다

科學文明은 人類史에 燦然한 業績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大衆醫學機能은 限界를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可謂 民族醫學조차도 先祖들의 智慧의 그늘에 安住한채 보다 새로운 경지로 前進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韓醫學의 復興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 後學들의 研究에 보탬이 되 어지기를 기대하는 충심으로 過分한 主題를 設定해 보았다 近來 韓方醫學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全世界的인 경향이다 따라서 이 같은 추세를 壟斷의 奇貨로 하여 一讀도 하지 않은 似而非 韓方學士들이 樣態를 接하면서 憐憫을 금할 수가 없다

韓醫學을 알지못하고서는 一言을 論할 수도, 一步도 動할 수 없으며, 韓醫學만 들여다 보고 韓醫學 이외의 것을 論하여도, 東洋醫學을 던고서서 다른 世界를 謳歌하여도 다같이 偏見에 사로잡힐 뿐이다. 그러므로 東西醫學의 比較批判을 통해서 韓醫學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學理的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本 論

우선 韓方醫學의 氣血의 概念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氣는 陽이요 血은 陰이기 때문에 氣血이란 元氣(精力)와 血液의 虛實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人體를 영위하는 原動力 卽 「에너지」를 지칭하는데 氣가 有餘(實)한 자는 활동적이며 言動 精神狀態 呼吸 音聲 등이 모두 壯盛하고(陽), 氣가 不足(虛)한 자는 靜的이며 言動·精神狀態·呼吸 音聲 등이 극히 弱하다 血實은 血液이 充足한 것을 말하며 血虛는 眞血이나 失血로 인하여 血液量이 不足한 것을 말한다 病的인 경우에 血熱 瘀血 鬱血 등 症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韓方과 洋方의 陰五領(五官)과 陽五領(五神)을 살

펴 보고자 한다.

● 陰五領

- 1 肝領神은 韓方으로 木性인데 洋方의 혈액중 纖維素이고
- 2 心領神은 韓方으로 火性인데 洋方의 血液中 赤血球이고
- 3 脾領神은 韓方의 土性인데 洋方의 血液中 血小板(即 血의 凝結作用)이다
- 4 肺領神은 韓方의 金性인데 洋方의 血液中 白血球이고
- 5 腎領神은 韓方의 水性인데 洋方의 血液中 血清이다

● 陽五領

- 1 肝領神은 動氣인데 人體生理的 活動은 肝領神이다 (산소)
- 2 心領神은 溫氣인데 人體生理的 溫度調節은 心領神이다.(탄소)
- 3 脾領神은 潤氣인데 人體의 潤澤調節은 脾領神이다 (질소)
- 4 肺領神은 燥氣인데 人體의 除濕 清潔調節은 肺領神이다. (철분)
- 5 腎領神은 堅氣인데 人體의 堅強性, 調節은 腎領神이다.(수소)

이와같이 陰五領은 屬血하고 陽五領은 屬氣하니 陰陽이 合則 五領이 된다

우리 人體에 있어서 無形의 生命力은 魂 神 志 魄 靈 등의 五神氣가 되고, 이의 所在은 五臟에 歸屬되고 있는데 魂은 肝, 神은 心, 志는 脾, 魄은 肺, 靈은 腎으로 각기 所處를 두고 無形的 生動을 發揮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들 五神氣는 感情의 狀態로도 나타난다 魂은 肝膽에 所在하면서 怒함을 主管하고, 神은 心 小腸에 所在하면서 喜樂을 主管하고, 志와 意는 脾胃에 所在하면서 思慮를 주관하고, 魄은 肺 大腸에 所在하면서 憂를 主管하고, 靈은 腎 膀胱에 所在하면서 恐을 主管한다 그러므로 喜 怒 思 憂 恐은 五大감정에 치우치면 이에 該當하는 臟腑에서 疾病이 발생하니 感情에 치우침이 그 어찌 疾病이 되지아니 하랴 하겠다 여기에 悲와 驚이 있는데 이를 포괄하여 所謂 七情이라 한다

이에 對한 예로서 激怒한 感情을 자주 일으킨 사람은 肝膽의 木인 魂이 激動하기 때문에 肝膽의 질병이 있고, 精神上으로는 魂이 亂動을 일으키게 된다. 同時에 脾胃의 土를 攻擊케 되나니(木克土) 消化器病이 발생케 된다 喜樂을 지나치게 하면 心臟이 擴張되고 神이 亂動이 되어 肺大腸의 金을 공격케 되나니(火克金) 氣管支 내지는 小腸經의 消化嘈雜症 등의 질환이 발생한다. 思志가 너무 지나치면 脾胃에 勞倦內傷이 되어 腎

膀胱의 水를 공격케 되나니(土克水) 泌尿 생식기 疾患내지는 浮腫病이 발생한다 憂慮한 感情을 격심하게하면 肺와 大腸에 疾病이 일고 魄이 난동하여 肝膽을 攻擊하니(金克木) 精神錯亂症 내지는 精液이 減退되고, 女子는 月經妄行 등이 온다. 恐怖心이 너무 지나치면 腎과 膀胱의 疾病이 일고 靈氣가 지나친 亂을 일으키는 同時에 心과 小腸을 공격하니(水克火) 偏枯症 내지는 男子는 精核이 부실하고 女子는 胎孕不産 등이 온다 이와같이 五大感情作用이 지나치면 該當된 臟腑에 疾患을 일으키므로서 患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法理의 患을 예방하기 위한 方法으로는 恒常 感情問題에 中庸을 擇하여 寬大한 性情을 發揮하도록 修養이 要求된다.

우리 人間의 疾病은 이 五大感情 卽 陰, 陽, 五行의 太過不及의 原理에서 發源된다는 점을 강조하는바 臨床 活用に 參考가치가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一. 人體의 化學的 變化現象의 韓醫學的 考察

1 肝 胞絡 厥陰風木의 化學的 變化 現狀

東醫學의 基礎 元法에 肝臟의 本性은 少陽이니 그 本分の 氣性이 化學的 變化로 置換하면 當時의 變態現象의 氣勢를 따라서 陰陽元法으로서는 化厥陰이라 이른다 또 風木이란 運氣元法에 恒動不靜 現狀의 名詞를 風木이라 하는데, 그러므로 人體의 生理現狀을 보면 肝胞絡 厥陰風木은 恒動이라야 生하고 反하면 命危하다 肝少陽의 氣性은 營養液을 攝取(洋方肝門脈이 營養液을 集合함은 韓方 肝少陽上昇氣의 勢力이다)하여 心肺로 올려보내는 恒動役割을 하고 胞絡은 心臟의 生出(靜脈 心臟을 거쳐야 全體에 營養할 生氣를 가지게 된다)하는 피(血)를 싸아 全體에 순환시키는 恒動的 役割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肝 胞絡 厥陰風木은 恒動이라야 生命을 가지게 된다

2. 膽 三焦 小陽相火의 化學的 變化現狀

東醫學의 基礎元法에 膽腑의 本性은 少陽이니 그 本分の 氣性이 化學的 變化로서 置換하면 當時의 變化현상의 氣勢를 따라서 陰陽元法으로서 化少陽이라 이른다 또 相火란 運氣元法에 火가 있을 수 없는 環境에서 火를 完全保障하는 物質의 名詞를 相火라 한다 그러므로 火가 아닌 物質이라도 火를 完全保障하는 當時에는 本名을 改名하여 相火라 한다 正式的으로 火를 가질 수 없는 者라도 權道的으로 相火라는 名稱의 總 負擔者가 되어 人體 各臟腑의 正常的 陰陽五行이 化學的 變化가 連續不絶되어 心君의 神明인 生命을 保存하게 된다.

3. 小腸 膀胱 太陽寒水の 化學的 變化 現狀

東醫學의 基礎元法에 小腸의 本性은 太陽이고 膀胱의 本性은 太陰이니 그 本分の 氣性이 化學的變化로 置換하면 當時의 變化現狀의 氣勢를 따라서 陰陽元法으로서 化太陽이라 이른다 또 寒水란 運氣化的으로 太陽熱度에 떠올라 가는 그 水分의 名詞를 寒水라 이른다 그러므로 人體의 生理的 現狀을 보면 小腸 膀胱 太陽寒水는 恒蒸이라야 生하고 反하면 命危하다 왜냐하면 小腸太陽의 蒸發力에 營養液이 肝膽으로 蒸上되고 膀胱太陰은 蒸留水를 뽑아서 體外로 排除하여 生命이 保存되니 그러므로 小腸 膀胱 太陽寒水는 恒蒸이라야 生命을 維持한다.

4. 心 腎 少陰君火의 化學的 變化 現狀

東醫學의 基礎元法인 心臟의 本性은 太陽이고 腎臟의 本性은 太陰이니, 그 本分の 氣性은 化學的 變化로 置換하면 當時의 變態現狀의 氣勢를 따라서 陰陽元法으로서는 少陰이라 이른다 또 君火란 것은 運氣元法에 萬物을 化養시키는 溫度의 名詞를 君火라 이른다 그러므로 人體의 生理的 現狀을 본다면 心腎 少陰 君火는 恒溫이라야 生하고 反하면 命危하다. 왜냐하면 心太陽의 熱도와 腎太陰의 寒도가 融化되어 正常的인 體溫을 調節하는데 그 溫度가 全無하면 卽死하니 그러므로 心 腎 少 陰君火는 恒溫이라야 生命을 가지게 된다

5 胃 大腸 陽明燥金의 化學的 變化現狀

東醫學의 基礎元法에 胃의 本性은 少陰이니 化學的 變化로 置換하면 當時의 變態現狀의 氣勢를 따라서 陰陽의 元法으로는 化陽明이라 이른다 또 燥金이란 運氣元法에 營養分의 淸한 要素만 攝取하고 濁滓를 除去하는 그 氣性的 名詞를 燥金이라 이른다 그러므로 人體의 生理的을 본다면 胃 大腸 陽明燥金은 恒除면 生하고 反하면 命危하다 왜냐하면 胃에 入輸되는 水곡은 小腸으로 除去하고 大腸에 멈추는 濁滓를 體外로 除去하지 못하여 關格되면 卽死하니 그러므로 胃 大腸 陽明燥金은 恒除以生한다

6. 肺 脾 太陰 濕土의 化學的 變化 現狀

東醫學의 基礎原法에 肺臟의 本性은 少陰이고 脾臟의 本性은 至陰이니 그 本分の 氣性이 化學的 變化로 置換하면 當時의 變態現狀의 氣勢를 따라서 陰陽의 元法으로서는 化太陰이라 이른다 또 濕土란 것은 運氣元法の 萬物을 生할 수 있는 土의 名詞를 濕土라 이른다 그러므로 人體의 生理的 現狀을 본다면 肺 脾 太陰濕土는 恒濕이라야 生하

고 反하면 命危하다. 왜냐하면 脾 胃에 輸入된 水穀이 液體로 化하여 四臟에 번복하는 關係로 肺의 燥가 濕潤化되어 淸燥한 天六氣를 吸收하여 生理를 營爲하고 反하면 卽死 하니 肺脾 太陰 濕土는 恒濕이라야 生命을 가지게 된다

二. 三陰 三陽의 六臟 六腑에 대한 處方과 藥材

1. 肝 胞絡 風木은 恒動이라야 生하고 反하면 命危하다는 原理에 따른 恒動의 處方은 六君子湯이 適宜하다고 사료되며, 藥材는 모과 아교 인삼 배 목향 육계 의이인 사삼 오가피 필발 건강 오수유 등일 것이다

2. 膽 三焦 相火는 恒和解라야 生하고 反하면 命危하다는 原理에 따라 恒和解의 處方은 小柴胡湯이 適宜하다고 사료되며 藥材는 치자 황련 백작약 승마 택사 청피 상백피 영양각 등일 것이다.

3 小腸 膀胱 寒水는 恒蒸이라야 生하고 反하면 命危하다는 原理에 따라 恒蒸의 處方은 六味地黃元이 適宜하다고 사료되며 藥材는 오약 소회향 필징가 익지인 석창포 굴핵 등이다

4 心 腎 君火는 恒溫이라야 生하고 反하면 命危하다는 原理에 따라 恒溫의 處方은 眞武湯이 適宜하다고 사료되며 藥材는 토사자 건강 육계 두충 석창포 파극 천문동 맥문동 오약 소회향 파고지 등속 일것이다

5 胃 大腸 燥金은 恒除라야 生하고 反하면 命危하다는 原理에 따라 恒除處方은 平胃散이 適宜하고 藥材는 석고 연교 대황 지실 빈랑 황금 황련 흑 가망초 파두 등일 것이다

6 肺 脾 濕土는 恒濕이라야 生하고 反하면 命危하다는 原理에 따라 恒濕處方은 理中湯이 適宜하고 藥材는 향부자 사인 육두구 익지인 곽향 양강 정향 반하 산사육 지각 건강 백두구 황기 오미자 등일 것이다 이상 論述한 바와 같이 人間의 創始(卽 太極의 創始)는 秩序와 節次로 人間이 생겨나서 首頭(머리)가 둥근것은 太陽의 象徴이요, 足(발)이 넓은 것은 땅의 象徴이다 눈(眼)은 日과 月이요, 骨格은 金石이요, 血液은 江河이며 毛髮은 草木이요, 皮肉은 塵土라고 보는 것이며, 內臟은 水 火 土 金 木으로 創始하였으니, 天寒氣는 在地하면 水요 在人에는 腎臟이 되고, 天熱氣는 在地하면 火요 在人에는 心臟이 되고, 天濕氣는 在地하면 土요, 在人에는 脾臟이 되고, 天燥氣는 在地하면 金이요 在人에는 肺臟이 되고, 天風氣는 在地하면 木이요 在人에는 肝臟이 된다.

이러한 根本原理를 모르는 韓醫學者는 없으리라고 사료되나 이같은 이치를 알고나서 人體의 疾病에 대한 寒熱虛實의 病證과 陰體, 陽體의 體質 分간을 하여 補和攻散의 四大基準과 溫涼補瀉의 四大方面으로 處方이 構成되어야 氣와 血의 調和 循環作用으로 虛則補其母하고 實則瀉其子란 治病要訣을 맞추어야 한다는 原理에서 後學徒에게 參考가 될까 하여 論하는 바이다.

三. 參考 - 婦人病에 대한 少考

(1) 婦人病을 알자면 먼저 女子의 特質 卽 胎産에 관한 女性 特有的 病을 말함인데, 婦人病이라면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나 그 내용에 있어 範圍가 대단히 넓고, 病의 種類도 한없이 많으니 그 한가지 한가지를 들어서 治病處方을 밝히기 전에 먼저 女子란 特質을 알고 가지각색의 疾病이 由來되는 原因을 찾는 것이 婦人病에 접근하는 기본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女子는 胎孕産育이란 자연이 賦與한 獨特한 生理的 職分을 中心으로 하여 肉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 男子와는 特異한 生活을 營爲하고 있다. 婦人病을 治療하는데는 先審月後調否를 살피라고 하였다 卽 經이 過期來者인지, 末期來者인지를 分간해보자 우선 女子의 胞는 一名 赤宮이라고도 한다 이 胞에는 天月星이란 三光을 法하였고 四時를 法하고 五色을 五行으로 法한 것이다 左는 青色(靑龍) 右는 白色(白虎) 上은 黃色(朱雀) 下는 黑色(玄武)이니 四方中 가장 中心이 된다는 말을 極言한 것이며 木火土金水의 氣血을 貯臟하므로 兩腎을 大海 또는 大中央이라고 하는데 寒熱濕燥風의 無形한 作態가 調節되지 않으면 月後不調로 胎孕不産이 초래된다

(2) 經水가 過期來者는 血虛有寒이요 末期來者는 血虛有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陰陽 寒熱 虛實 表裏의 八綱이 100%가 다 맞는 것은 없다고 보나, 人身의 疾病은 50%만 藥物로 有效하다고 보고 50%는 自己의 精氣神으로 治療가 된다고 보는 것이 正理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가. 過期而來者는 血虛有寒이다.

이 血虛有寒의 處方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四物湯을 用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四物湯이 不適宜한 體質과 證候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血虛는 분명히 血補劑인 四物湯이 적당하나 有寒이란 六氣의 無形한 證候를 加減해야 하는데 氣의 作態만은 거의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면 그 氣를 治療하자면 補氣行氣를 해야 하니 宜當 四君子湯을 合方하고 行氣之材인 두충 파극 오약 소회향 파고지 건강 육계 오수유 애엽 등등이라고 사료되며.

나. 末期而來者는 血虛有熱이다

이 原理는 前者와 같은 징후인데 四物湯에 四君子湯을 合方해서는 逆效가 올 수도 있는 바 마땅이 四物湯에 小柴胡湯을 合方해야 하고, 活血解熱 할 수 있는 藥材를 加해야 옳다고 본다 그 藥材로는 목단피 단삼 치자 청피 현삼 지모 황백 익모초 등이라고 사료된다 添言하여 동일한 證狀에 혹자는 惡寒 發熱하고 頭痛 項背證狀이 있는 경우엔 太陽經證인 膀胱 小腸經證으로 보고 강활 방풍을 加해야 하며, 口苦 咽乾 胸脇 苦渴의 症狀이 있다면 시호 황금을 가해야 하고 目疼 鼻乾 不得臥證候의 경우엔 갈근 백지를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호 황금의 主證은 小陽經證이고 갈근 백지의 主證은 陽明經證이라고 사료되며, 餘皆는 正傷寒 六經證의 陰證候群을 參考하면 큰 誤差가 없으리라고 본다

(3) 胃腸病에 대한 小考

胃腸病治療라고하면 대단히 광범한 문제이다 人體의 모든 器官, 심지어는 세포 하나라도 그 全體에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니 胃나 腸을 이해하자면 무엇보다도 胃腸의 기능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 機能을 이해하는데 종합적 生理學的 立場에서 胃腸과 다른 腸器와의 相互關係性 또는 胃腸과 人體全體와의 關係, 한걸음 더 나아가서 胃腸과 사람의 精神的 肉體的 生活 全體와의 關係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綜合生理學이라고 하는것은 從來의 現代 醫學的인 生理學은 分析 生理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보다 좀더 한계를 넓혀서 生體 全體의 狀況을 綜合的으로 觀察하는 立場에서 있는 生理學을 意味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가령 胃酸過多나 胃酸缺乏이라고 할 때 우리는 胃라는 그 腸器의 局所를 들여다보고서 胃酸이 많다, 胃酸이 적다 하는 것을 알아서 處置方法을 講究하는 것보다 人體의 全體의 狀況이 어떠한때에 胃酸過多症이 생기며, 精神的 肉體的으로 어떠한 生活狀態에 있을때 胃酸不足證이 생긴다는 것을 理解하려는 것이 綜合生理的 立場이다. 예를 들어 胃가 收縮作用을 충분히 못해서 消化不良이 있다는 것보다 어떠한 體質을 가진 사람에게 胃腸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治療에 더 필요한 것이다 즉 肉體勞動者와 精神過勞者의 胃腸疾患을 比較해 보면 前者는 勞役過多로 인한 脾胃腸의 機能이 약화된 자일 것이니 脾胃의 補氣血을 해야 한다고 볼때 補中益氣湯에 승마 시호를 密炙 倍用하며, 補性的 藥材인 산약 아교 오미자 건강 목향 백두구 외에 인삼 백출 백복령을 倍加해야 된다고 본다

後者는 心 肝臟의 精神的 過勞로 인하여 心臟의 小家인 小腸이나 肝臟의 小家인 膽腸이 叙氣가 되지 않아 消化機能이 弱화된 자일 것이니, 解鬱利膽을 해야 한다고 본다

면 六鬱湯이 適宜하다고 보며, 叙解약재로는 시호 치자 황금 황련 청피 작약 생지황 향부자 목단 택사 등이 適宜하다고 보는 것이 綜合治療의 根本이라고 사료된다. 여기서 우리가 胃酸過多나 胃酸缺乏者의 證狀을 잠시 살펴보면, 食後卽痛者는 胃酸缺乏일 것이고, 空腹時痛者는 胃酸過多者일 것이다. 이 과정중에도 100%의 確定이란 어느 醫學者도 불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胃家 無力證이면 空腹이나 食後나 분간없이 쓰릴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觀察에 의해서 諸 疾病에 있어서도 綜合 根源治療를 志向하는 接近態度야말로 局所 末端治療의 西洋醫學을 능가하는 韓方의 特長이라고 하겠다.

結 論

東西醫藥을 막론하고 問證은 가장 중요한 診法의 하나임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患者側에서는 特히 韓方醫와의 問證을 拒否하여 診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물론 脈診의 妙가 없는 바는 아니나 이는 脈診을 너무나 지나치게 誇張 선전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診法의 重要性은 切脈에만 치우쳐 依存할 수 없는 것이며 望色 聞聲 問證 등 綜合結論이 要請되는 까닭이다 이에 그를 列舉하자면, 먼저 病因을 찾아서 七情六慾과 風寒暑濕燥火와 飲食起居의 損傷과 驚恐之類를 더듬어야하고, 또는 病形에 있어서 痛痒寒熱과 喘咳煩渴과 吐利脹滿과 便閉抽掣之類를 살펴야되고, 또한 晝輕夜重과 暮熱朝寒의 氣分病人가 血分病人가를 陰體質인가 陽體質인가를 살펴서 進退盛衰와 辨證兼證을 따져야되고 病情에 있어서 惡寒 惡熱과 苦口苦滿과 心煩不昧와 大少便狀 등을 상세히 문의하여 절맥에 들어갈 예비지식을 갖추어 참고삼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本學術이 新進斯學 諸賢의 學文 研究에 毫末之利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渴望하며, 大韓韓藥協會 學術委員님들의 高名하신 敎訓을 바라옵고 아울러 韓藥協會 會員諸賢의 無窮한 發展을 訴願합니다

(前會長 서울 용산구 보광동 274-17 덕성당한약방 ☎ 02-793-8310)